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23〉 스위스 바젤미술관

시민들이 만들고 키워온 세계 첫 공공미술관

바젤=정상필 EU특파원

수집가들에 작품 사들여 개관
소장품 30여만점…명작들 즐비
매일 2~3개 시민 강의·토론

인구 20만명의 스위스 북부 소도시 바젤(Basel)은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다. 에라스무스가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츠빙글리와 칼뱅 등이 프로테스탄티즘을 퍼트렸다. 바젤미술관(Kunstmuseum Basel)이 세계 최초의 공공미술관이라는 점은 이처럼 선진적이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바젤 시민들의 문화 경쟁력은 세계 최대의 미술시장으로 불리는 바젤 아트페어로 꽃을 피우고 있다.

유럽의 오래된 미술관들이 대개 왕가나 귀족들의 소장품을 일반에 전시한 데서 시작됐다면, 바젤미술관은 개관(1662년) 전 수집가로부터 작품을 도시가 사들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대식 공공미술관의 개념을 17세기에 구현한 것이다. 가족이 에라스무스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법률가 아머바흐(Basilius Amerbach·1533~1591)는 한스 홀바인의 작품 15점 등 회화 50점을 비롯, 드로잉과 판화를 포함한 총 5천여 점의 작품을 미술관 개관 1년을 앞두고 바젤 시에 팔아 넘겼다. 15세기 설립된 스위스 최초의 대학 바젤대학 부설이던 미술관의 첫 소장품이었다.

대학의 일부에서 17~18세기에는 바젤 시내 현재 미술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곳 등을 거쳐 1936년 지금의 건물에 들어섰다. 시와 재단, 수집가 등의 노력으로 소장품을 꾸준히 늘렸다. 한스 홀바인, 루카스 크라나흐, 콘라드 비츠 등 라인강 인근 도시를 무대로 활동했던 16~17세기 화가들의 작품과 반 고흐, 고갱, 세잔, 독일 표현주의 등 19~20세기 작품, 20세기 후반 미국 미술 등이 회화관에 소장돼 있다.

판화 및 드로잉 전시실(Kupferstichkabinett)에는 30만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있다. 개관 당시 아머바흐의 소장품에서 시작해, 1823년 바젤 대학의 기증으로 소장품 규모가 크게 늘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의 스케치북 등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판화와 드로잉 등 소품은 주로 특별전을 열 때 쓰인다. 앤디 워홀 등 20세기 작가들의 작품도 있다.

소장품에서 알 수 있는 바젤미술관의 특징은 르네상스 화가 등 전통 회화에 큰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안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물의 주 출입구를 들어서면 중정(中庭)에서 관람객을 처음으로 맞는 작품은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칼레의 시민들'이다. 수백년의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현대적 역동성이 첫인상에서 느껴진다. 1959년 스위스 국립 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것도 바로 바젤미술관이었다.

시대를 초월한 바젤 시민들의 문화사랑은 파블로 피카소 작품의 일화에서 잘 전해진다. 1967년 시민들의 요구로 바젤미술관은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 2점을 수집가 루돌프 슈테헬린(Rudolf Staechelin)의 재단으로부터 장기대여했다. 피카소의 작품들이 바젤미술관에서 없어서는 안될 대표작품으로 간주되는 바람에 슈테헬린 재단은 이후로도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바젤미술관의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3개의 강의 및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도 '저드(Judd)에서 플로이어(Floyer)까지-전시작품을 중심으로', '최근 입고된 소장품' 등으로 단순히 교양을 기르는 수준은 넘는 듯하다.

바젤 아트페어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독일 및 프랑스와 국경 지역의 스위스 도시에서 열리는, 다시 말해 단지 지리적 이유만은 아니라는 점을 바젤미술관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전세계 300여 갤러리가 참가해 4천여점의 작품들이 거래되고, 6만여명이 다녀가는 세계 최대의 미술시장 바젤 아트페어 기간 동안 바젤미술관도 앉아서 구경만 하지는 않는다. 올해에도 아트페어 기간에 맞춰 '반 고흐 특별전'으로 재미를 봤다. 물론 바젤 시내 다른 미술관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열어 전세계에서 시장을 찾은 손님들을 맞았다. /camus@kwangju.co.kr

스위스 북부의 소도시 바젤의 바젤미술관 전경. 세계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바젤미술관 중정에 전시된 프랑스 조각가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들'.

인문주의 구현, 르네상스 미술 이끈 3父子…대표작 대부분 바젤미술관에

■바젤의 문화적 토대 홀바인家

바젤의 문화적 내공이 오늘과 같을 수 있었던 데는 홀바인(Holbrin)가(家) 삼부자의 공이 크다. 아버지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the Elder·1465~1524)과 큰 아들 암브로시우스(Ambrosius Holbein·1493~1519), 작은 아들 한스(Hans Holbein the Younger·1497~1543)가 그들이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는 영국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된 '작은' 한스 홀바인이다.

독일 남부 도시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 출신인 이들은 1515년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1466~1536)가 사는 '인문의 도시' 바젤에 정착한다. 이들은 바젤에서 약 10여년 동안 귀족들의 초상화를 비롯, 성당의 벽화 등을 주로 그렸다. 바젤미술관이 홀바인 삼부자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아버지 한스는 후기 고딕 양식의 종교화를 주로 그렸는데 독일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대형 그림 외에 책에도 그렸는데, 에라스무스의 대표작 '우신예찬' 속 삽화가 유명하다. 큰 아들 암브로시우스는 다소 이른 나이인 26세에 세상을 등졌다.

작은 아들 한스는 종교개혁을 피해 1526년 바젤을 떠나 영국으로 향한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추천으로 런던의 토마스 무어를 만나게 된다. 그의 런던 생활 10여년 후인 1536년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된다. 그가 바젤에서 남긴 대표작으로는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1521·사진), '에라스무스의 초상화'(1523) 등이 있고, 영국에서는 '대사들'(1533) 등의 작품을 남겼다.

바젤미술관에 전시된 '작은' 한스의 대표작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면 그가 왜 서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르네상스의 뼈대인 인문주의 철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상한 채로 좁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한 남자, 이제껏 한스처럼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를 그린 화가는 없었던 것이다.